

보 건 관 리

예방의학 보건관리 전공의
졸업후 교육과정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명 세

보건관리 석사교육과정 발전 방향

1. 머리말

사회, 경제, 산업 등 인간이 관련되어 있는 전 분야에 걸쳐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걸쳐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이 보건관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관리학 분야에는 의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정책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의사로서 보건관리 분야의 학문을 전공할 때 어떤 방향으로 교육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과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의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장이었던 페이비스(Karen Davis)는 보건정책 및 관리를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efficient), 효과적으로(effective) 그리고 형평적으로(equitable)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또, 하바드 보건대학원장인 화인버그(H. Fineberg)는 이 학교의 교육목적을 ‘인구집단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나 서비스 분야의 선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 전문적인 시각의 확대, 복잡한 보건문제의 이해와 가능한 해결방법의 제시,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가로막는 경제적, 조직적, 정치적, 행태적, 생물학적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검정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에 있어서도 보건관리학의 목적이나 목표가 존스홉킨스나 하바드 보건대학원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설과목이나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나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2. 교육요소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를 크게 나누어 보면, ‘누가(implementation, source)’, ‘누구에게(target population, receiver)’, ‘어떤 내용을(content)’, ‘어떻게(method, channel)’이라는 네가지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라는 것은 교과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전공교수에 해당된다. 국내 각 의과대학에서 보건관리학 관련 전공교수들의 전문분야를 보면 보건관리학 분야의 교육을 충분히 전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가장 전임교

수가 많은 대학조차도 보건관리학 관련 교과목을 충분히 교육하기에 부족하다.

'누구에게'라는 것은 피교육자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대학에서는 의사출신 전공의들만을 대상으로, 또 어떤 대학은 여러 전공출신들이 섞인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더우기 열과 성을 다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저 학위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육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 교과과정을, 좁은 의미로는 교과목 또는 교과내용을 말한다. 이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느냐 또는 앞으로 일하고자 하느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이 과정은 기초분야에서 응용분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다지 다양한 교과목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과정 자체도 전문가를 양성해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어떻게'는 교육내용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이라는 세가지 요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그 예로 강의, 세미나, 워크숍, 실험,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내 의과대학의 보건관리분야를 보면 교육 또는 연구에 치중하기에 그 인력이 부족하며, 교내 업무나 학생교육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석사과정 교육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뜻 선택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3. 선행과제

보건관리 석사교육과정의 발전방향을 전개하기에 앞서 크게 두가지의 선행과제를 적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관리 석사교육을 마친 전공의들에게 적절한 직업시장(job-market)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시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의 선행과제가 없이는 아무리 교과과정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향후 교육의 정상화나 보건관리 교과과정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4. 교과과정 현황

보건관리분야의 이론은 의료를 보는 기본적 시각에 따라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시간과 자료의 제한때문에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관리 교과과정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보건관리분야 석사교과과정중 존스 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보건대학원(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보건정책 및 관리학 교실(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의 보건과학 및 보건교육 전공, 보건재무 및 관리전공, 보건정책전공, 공중보건전공 과정과 하바드 대학교 보건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공중보건학 석사과정 프로그램(Master of Public Health Program)의 보건관리전공, 공공 및 지역사회 보건관리전공, 국제보건관리전공, 공중보건 및 법률전공 과정을 예로 들고자 한다(표1, 표2).

이들 대학의 보건관리분야 전공을 보면 보건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존스홉킨스의 경우는 예방의학 전문의 과정을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의 공중보건 전공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하바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중보건 및 법률전공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관리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좌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표1. 존스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관리분야 석사필수 교과과정

	행동과학 및 보건교육전 공	보건 재무 및 관리전공	보건정책	공중보건
생정통계학 개론	○	○	○	○
기초 생정통계학 - 추론	○	○	○	○
기초 생정통계학 - 통계적 모델		○	○	○
역학원리				
Epidemiologic and preventive Aspects of Cariocascular diseases				○
보건정책 및 관리 개론	○	○	○	○
Managing Health Service Organization		○		
Social & Behavioral Aspects of public Health		○		
공중보건 실습				○
조직 및 관리 이론		○		
Financial Management of health Care Facilities		○		
의료정보시스템			○	
Policy Issues in Health Care Financing & Delivery			○	
Human Resources in Health Organization		○		
Strategic Positioning & Marketing		○		
Introduction to Operations Research		○		
Quantitative Methods in Health Policy Analysis			○	
Special Studies & Research Health Finance & Management		○		
Health Policy Analysis & Synthesis			○	
Data Sources & Applications for Health Policy Analysis			○	
Role of Government in Health Policy			○	
Introduction to Methods for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Evaluation			○	
응급의학 및 시스템				○
공중보건 및 법				○
Issues in Injury Control				○
Epidemiology of injuries				○
Preventive & Behavioral Aspects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 Disease				○
Community Outreach:Issues & Practice				○
건강과 질병의 정신사회적 요인		○		
Principles of Health Behavior Change	○			
Communications Strategies for Health Education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원리	○			
Implementation & Sustainability of Community-based Health Programs		○		
Inter-personal Influence in Medical Care	○			
보건경제		○		

표2. 하바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관리분야 석사 필수 교과과정

과 목	보건관리전공	공공 및 지역 사회 보건 관리전공	국제보건관리 전공	공중보건 및 법률전공
공중보건의 윤리 및 실제	○	○	○	○
국제보건의료			○	
생정통계학	○	○	○	○
역학	○	○	○	○
환경보건학	○	○	○	○
개발도상국의 보건관리 회계 분석 및 관리				
보건의료에서의 전략적 마케팅 양 질의 의료관리	○		2과목선택	
제3세계국가의 보건정보체계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기획 (비용효과분석)				
보건의료관리의 실제	○			
선진국에서의 공중보건관리	○	○		○
보건 및 사회행동론	○	○		
공공 및 지역사회 보건관리의 실제		○		
사회와 건강		○		
보건교육의 혁신 전략		○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접근		○		
보건의료의 법, 경제, 윤리				○
보건의료의 경제학적 분석				○
보건정책 및 관리의 법적응용연구				○

표3. 국내 각 대학의 보건관리분야 석사교과과정

	의료정책	의료경제	보건행정	의료보장	의료사회학	보건관리	보건정보	병원관리
경북대								
대학원 의학과	○	○	○	○	○	○	○	○
보건대학원	○	○	○	○	○	○	○	○
경희대						○		
계명대	○					○		○
부산대(비정기적)			○	○		○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	○	○	○	○	○	○
보건대학원	○	○	○	○		○	○	○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과	○	○	○	○	○	○	○	○
보건대학원		○				○		
이화여대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		○	○		○		
보건대학원		○	○	○				
전북대								
전남대	○	○	○	○		○		○
한림대	○	○			○			○
한양대	○	○	○	○	○	○	○	○

*석사과정 이수과목기준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보건관리 이수과목이 없거나 현재 수련받는 전공의가 없음.

표1과 2에 제시한 필수교과과정의 교과목명만을 보더라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느끼게 한다. 국내에서도 각 보건대학원 등에 보건행정 전공, 병원관리 전공, 공중보건 전공 등으로 나누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정에 따라 나름대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과목명을 자세히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루는 양이 방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참고로 부록에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과 하바드 보건대학원의 선택과목을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자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관리 교과목의 개설시에 방대한 양을 다루는 포괄적인 교과목을 개설하기 보다 구체적이며,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3은 국내 각 대학의 보건관리분야 석사교과과정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 대학마다 명칭이 달랐기 때문이며, 또한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교육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사과정에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는 제외하였음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국내현황을 보면 몇몇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교육 조차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 향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5. 발전방향

한국보건관리과정의 교과목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개 대학을 제외하면 보건관리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제대로 다루어 지고 있지 않다. 또, 세개 대학 및 대학원도 목표로 해야 할 교과과정을 전체로 소화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반면에 많은 대학들은 교수진의 부족과 정확한 목표의 결여 때문에 강의에 관한한 예방의학 보건관리분야의 졸업후 교육에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좋은 방법은 각 대학이 보건관리전공 전임교수진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각자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이 소고에서는 교과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는 것 보다는 발전방향으로서 다음의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교과과정의 표준화

예방의학 보건관리 분야의 졸업후 과정의 교과과정의 최소한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에는 미국 유럽등의 교과과정을 참고하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관리 전공으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을 규정한 학습목표의 단계가 아닌 학문으로서의 보건관리 분야를 이해 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보건관리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9개 보건대학원과 보건행정학회의 공동작업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합 교육의 실시

표준화된 최소한의 교과과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대학원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는 스스로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대학에서는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케 하거나 학회 또는 각 기관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계절 학기를 운영케하여 통합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통합교육 또는 계절학기의 운영은 가능한한 지역화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각대학에서 학문분야별로 교재를 개발하여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방법, 전공의 교류를 통해 훈련시키는 방법, 교육담당자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 등의 방법이 있겠다.

또한 보건관리분야 전공의가 보건관리분야만 훈련을 받느냐 또는 역학그리고 환경 산업보건분야를 같이 훈련을 받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예방의학 분야의 보건관리 전공의의 졸업후 교육 문제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루어 보았다.

한국의 보건관리분야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좋지 않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국내정책 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클리턴청서인 Health Security Plan을 읽으면서 보건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참가했던 보건관리분야 학자들의 활약을 조감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필요한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보건관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예방의학의 보건관리분야의 정상화 및 내실화가 더욱 필요하다.